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40차	일자	2021.09.27.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	11/13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가을축제 및 통일공대와 연합콘텐츠 진행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약학대학	가을축제 진행
예술대학	불참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10/5 단학대회 예정
통일공대	축제 진행 및 경영경제대학과 연합콘텐츠 진행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2학기 개강인사 이벤트 상품 발송 예정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및 자료집 관련 준비 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스터디 중앙대 파이터) 진행 중 연대사업 비건 학식 도입 관련 정책 이행 보고 완료 일상복지 교내 셔틀버스 운영개선 관련 공문 발송 완료	문화위 가을 축제 업체 입찰 진행 완료 성평위 정혈용품 비대면 이벤트 당첨자 발표 완료, 학생 대표자 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준비 중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추석 귀향버스 대체사업 진행 완료 장인위 배리어프리 지도 오프라인 부착 완료, 학생 대표자 대상 장애인권 교육 관련 준비 중 졸준위 졸업앨범 촬영 예정 (9/28~29)

사과.정: 졸준위에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 저희 단위에서 나온 의견인데 지금 졸업준비위원회의 졸업 관련 안내가 이미지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따로 바둑글이나 텍스트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이미지의

화질조차 떨어져서 단위 내에서 졸업 관련된 안내를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지 화질이 너무 깨지는 부분 이미지 좀 화질 좋은 것으로 학우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닥글이랑 대체 텍스트도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총: 줄준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질의 없으시면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3 논의안건

2학기 회칙 및 세칙 개정 논의

- 총학생회 회칙 개정
 - 각 제안별 검토 및 상정 여부 논의
- 선거시행세칙 개정
 - 각 제안별 검토 및 상정 여부 논의
- 기타 논의

총: 우선 부총학생회장님께서 가지 번호 방식 정렬을 위한 총학생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셨을 것이다. 가지 번호 자료를 약 5분간 정독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 우선 안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회칙은 연속성을 가진 규범이다. 또한 조항 개정이 있어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조항 개정에 따른 타 조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개정에서는 가지 번호 방식의 정렬 즉 제n조의 2 n조의 3과 같이 조항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기타 조항 아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한다. 5월 18일에 있었던 1학기 전학대회에서의 개정안에서는 일부 개정으로 다수의 조항이 개정되었고 연계 조항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뒷 조항을 밀어 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칙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삭제 조항이 표기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제6조 그리고 유지되어야 하는 삭제 조항의 번호 총여학생회 회칙과 관련된 제44조에서 제46조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 이는 가지 번호 방식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기존의 회칙 개정 절차와도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칙 조항을 가시번호 방식으로 재정렬하고 이전에 신설했던 조항을 기존 조항 내 항목으로 편입시켜 1학기 회칙 개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중운위분들은 정독해 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도 시간이 종료되었다.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가지 번호 방식 정렬을 위해 회칙 개정안을 먼저 의결을 하고 개정된 회칙을 바탕으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이다. 가지 번호 조항 관련 의견을 내기 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1학기 회칙 개정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셨다고 안건 설명에 적혀 있었는데 1학기 회칙 개정에서의 오류를 언제 발견하셨는지?

총: 우선 법률 법적으로도 봤을 때 법도 개정을 할 때 가지 번호 방식을 채택한다고 한다. 그 부분에 미처 전학대회 때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전학대회 이후에 해당 사항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다.

사과.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안건 설명 두 번째 문장에 적혀 있는 뒷 조항을 밀어 새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칙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삭제 조항이 표기되지 않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삭제 조항의 번호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부총: 일단 거기 써져 있는 내용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은 전제를 두면 기존의 회칙 개정이 저희가 예를 들어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가지 번호 식으로 회칙이 개정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오류가 있는 조항은 이제 저희가 총여학생회 삭제 조항이 계속 회칙에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전 회칙 개정에서 제6조 자문위원회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 조항으로 표기해서 그 조항 번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회칙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삭제 조항인데 그 조항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조항이 이전에 기존 회칙으로써 있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함인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회칙 개정을 할 때 그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다 삭제 조항을 번호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확운위에 앞서서 회칙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뒤늦게 판단이 돼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내게 됐다.

사과.부: 해당 답변 확인했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있으신지? 관련해서는 다음주 중운위 회의 때 의결을 진행을 해서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 추가적으로 의견 있는데 사과대가 게시판 댓글과 지난 회의에서 약 11가지 정도의 개정 의견을 드렸었는데 반영된게 전혀 없고 가지 번호만 지금 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럴 거면 왜 개정 의견을 정리해서 오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학운위랑 전학대회가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없고 지금 개정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를 어제 올려주시지 않고 오늘 올려주셔서 다음 주 회의 전에는 일요일에는 참고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총: 네 알겠다. 우선 가지 번호 정렬 관련해서 개정안을 규정하느라 다른 대표자분들이 올려주신 계정 내용은 해당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 가지 번호 방식 정리를 위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끝이 나면 이제 대표자분들이 올려주신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씩 논의할 예정이었다.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정: 네 인문대학 추가 질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과대 회장님들께서 지난주 중운위 논의에서 낸 의견들은 다음 주 회의에 논의를 거쳐서 최종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인지?

총: 지금 논의를 하나씩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최종 의결은 다음 주 회의 때 진행을 할 것이 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부총: 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해당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다만 가지 번호 계정이 만약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면 처음에 개정 가지 번호를 바로잡은 다음에 이제 내용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번호 개정안을 전체 개정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각 개정안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답변이 되셨는지? 다른 대표자분들이 제안해주신 개정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사과대 회장님께서 첫 번째로 올려주신 학생회칙 제1조 명칭 개정 내용이다. 현재 제1조 명칭을 보면 본회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가 각기 다른 회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한다면 내용을 수정하자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간호.정: 관련된 의견은 아니고 원래 오늘 자료집 통해서 같이 보면서 각 단위에서 올려주신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사정으로 없다고 하니 화면 공유를 회칙 같이 보면서 해도 될지 여쭙는다.

총: 총학생회칙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부칙 제2조에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각기 총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 활동을 한다 라고 되어 때문에 사과대에서 발의해 주신 것에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해당 조항 개정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학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과학대학 동의한다.

총: 네 알겠다. 두번째로 학생회칙 제3조 휴학생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분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으셨는데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장의 삭제에는 이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 상세 이유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단 간에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중운위 회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도 해당 조건 유지하는것에 동의한다. 총학생회장단 의견에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총학생회장단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들의 의견 없으시면 사과대회장님이 올려주신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학생회칙 제 6조 제32조 39조 이제 10장에 대해서 전체 개정을 하자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특별자치기구로 수정하자는 안건 그리고 지난주 인문대에서 내주셨던 의견처럼 인복위, 성평위, 장인위는 특별자치기구 성격으로 줄준위, 문화위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인복위, 성평위, 장인위는 총학생회 내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기 위해 보도의 자치성이 필요하다. 문화위와 줄준위는 다른 업무와 예산 사용의 측면에서 볼 때도 위원회로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고 총학생회장단 의견 드리도록 하겠다. 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장애인권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현재 위원회 간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논의를 완료한 다음에 중운위 안건을 이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권복지위원회를 성평위와 장인위랑 같은 성격이 단위로 봐주셨는데 사실 인권복지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 등 인권 자체를 다루는 부서는 아니다. 인권에 대한 사업만 진행을 할 뿐 인권복지위원회 존재 목적도 복지를 위한 부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복위는 학생 복지 사업을 주 업무로 하여 그 기능이 집행위원회와 밀접하다 라고도 볼 수 있으며 특별자치기구로 변경한다면 현행 유지보다 사업 수행의 차질이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총학생회장단 의견 마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인복위 관련된 총학생회장님 의견 들었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성평위랑 장인위랑 현재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좀 진행 상황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총: 우선 성평위와 장인위에서 특별자치기구로 개정하자는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만 총학생회장단은 특별자치기구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으로 한 번 더 논의가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인복위에 대한 의견이나 세 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시기 바란다.

사과.정: 네 저희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해를 했고 그런데 사실상 성평위와 장인위나 기타 단과대 단위에서 특별자치 기구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총학생회장단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개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혹시 성평위랑 장인위를 특별 자치기구로 개정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 싶다.

총: 우선 두 위원회가 특별자치기구로 빠진다면 그런 총책임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총학생회 내의 특별자치기구로 독립이 된다면 그 위원장의 선출이라든지 이런것들도 대표자 간의 의견이 상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학생 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했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상이다.

사과.정: 네 의견 이해를 했다. 근데 다만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다루는 인권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두 위원회는 원래 임명 등에 있어서 위원회 자체성을 갖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9월 말이라서 좀 선부른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3, 4월 전학대회 이전부터 특별 자치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사과대의 의견은 이렇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이 없다면 의견이 없다 라고 해 주시고 성평위, 장인위간의 논의가 끝이 난 후에 중운위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는 내부 논의 진행 후에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의견 없다.

간호.정: 간호대 경경대와 의견 같다.

동연.부: 동연도 경경대와 의견 같다.

사범.정: 사범대도 경경대와 의견 같다.

자연.비: 자연대도 의견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사회과학대학과 의견 동일하다.

통공.부: 공대 경경대 의견에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 경경대 의견에 동의한다.

총: 그러면 네 번째 학생회칙 제51조 1항 개정에 대한 내용이다. 각 위원회를 총학생회장 산하에 둔다는 표현을 총학생회 산하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안건이었는데 총학생회장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회칙 내에 총학생회는 제1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회원 전체를 포함하는 단체이다. 즉 중앙대학교 학생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총학생회 산하기구라는 표현은 중앙대학교 학생사회 내에 설치된 독립기구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때 총학생회장이 산하기구라고 표현을 명기한 것은 각 위원회가 이른바 집행부에 속하는 한편 중앙집행위원회와는 구별되는 행정기구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학생회장 산하기구 라고 표현을 했다. 또한 기구의 총책임자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통공.부: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도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학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은 추가의견 없으신지? 없으신 걸로 하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제63조 1항 피선거 자격 중 4학기 이상 이 개정을 없애자 라고 사과대회장님께서 개정을 제안해 주셨다. 총학생회장단 의견은 4차학기 최소 학기 재학 조건이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 출마의 조건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단에서도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당장 금차 회의에서는 의견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4차학기 이상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은 아니었고 2016년도 12월에 편입생 학우분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오려고 했는데 학칙내에서 중앙대학교에서 등록한 학기가 4차보다 적어서 선거에 등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4차학기 이상을 유지하되 편입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등록한 기간도 가름하여 보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드린 거였다. 네 4차 학기 이상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아니었다.

총: 추가설명 감사하다. 이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인문.정: 해당 내용이 인문대학이 밑에서 개정을 제안한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대학도 당장의 이 조항을 삭제하자기보다는 중운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 저희도 의견을 냈던 것이다. 인문대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회칙이 학기 이상이라든지 학차의 수 그리고 나이 등을 이유로 피선거권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학사회 내에서 모든 회원은 다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인문대학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에 일단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총: 네 저도 이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편입생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끝이 나고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4차학기 이상의 조건을 없애는 것에 대한 또 중운위분들 의견을 구하려고 했었다. 우선적으로 이 편입생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사실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어느 정도 본교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이 출마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최소 조건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인문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지 중선관위의 차원에서 강제할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다. 당장 의견을 내기 힘들다면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최종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다. 편입생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단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차기 중운위 회의록에 이관을 요청하시면 감사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편입생에 대한 의견을 내자면 저희는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일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면 편입생에 대한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이 정도 일 것 같다.

총: 네 말씀해주신 대로 4차학기 이상 등록과 편입생의 등록 조건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만약에 현행 회칙을 유지할 경우 즉 4차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가 이 선거 자격을 갖는다는 이 현행 회칙이 유지될 경우에는 사실 편입생의 등록 기간의 가름은 부정되는 것이겠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간호.정: 간호대학은 차기 회의때 재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다.

사범.정: 사범대도 단운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에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다.

자연.비: 자연대도 마찬가지로. 차기 중운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경경.정: 경경대도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통공.부: 공대도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총: 네 차기 중운위 회의로 안건을 이관하도록 하겠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34조 4항 총학생회장의 유고 및 사퇴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라는 조항과 제66조 2항 제34조 4항에 관한 사항의 내용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66조 1항을 개정하자 라는 의견을 내주셨다. 우선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34조가 선출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조항이 있고 4항이 선출의 일부 항목인 보궐선거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행 유지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해당 조항이 타 조항과 상충되지 않으며 회칙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다. 그리고 제34조 4항은 유고 및 사퇴시의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제66조 1항은 탄핵 시에 보궐선거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항 간의 충돌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 여부를 추가 의견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에 맞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의견이 없으신지?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추가의견 없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추가의견 없다.

자연.비: 자연대 추가의견 없다.

약학.정: 약대 추가의견 없다.

통공.부: 공대 추가의견 없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는 34조에 대해서 의견 내도록 하겠다. 34조 4항의 경우에는 선출에 대한 내용인데 유고 및 사퇴시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66조에서만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의견 낸다.

총: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궐선거도 선출의 일부 항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미 34조 2항에도 권한 대행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선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경.정: 그럼 경경대는 해당내용 동의하도록 하겠다.

총: 다른 대표자분 의견 없으시면 7번째 제68조 임기 관련 내용을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회칙 내 미비한 조항의 보강의 의미로 사과대에서 제안해 주신 정기 선거의 경우 12월 1일부터 그 밖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당선 확정 다음 날로부터 내용을 수정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연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총: 네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제81조 2항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 학생총회는 학생 총투표와 달리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이다. 따라서 총투표와 학생총회가 동등한 권리에 있거나 총투표보다 학생총회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 사과대의 의견이다. 현 회칙 제81조 2항은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학생총회보다 총투표를 우위에 두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제안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총회 성사에 필요한 의사참여율이 전체 회원의 10분의 1이고 총투표 성사에 필요한 의사 참여율이 전체 유권자의 50%이므로 총투표 성사에 필요한 의사참여율이 더 높다. 그래서 총투표의 대표성이 더욱 크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내용에 입각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총학생회장단 의견에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총학생회장단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좀 질의가 있는데 제 7장 학생총회 지위를 보면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학생총투표 조항을 보면 모든 앞에 있는 의결보다 앞선다 라고 보면 학생총투표가 학생총회보다 그러면 더 상위에 있는 기구인지? 이 학생총투표의 지위와 성격 이런 위치 자체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인문대학도 학생총투표 조항을 지난 1학기 입학대회에서 넣으려고 했다가 지위나 어떤 위치 같은 게 애매해서 삭제한 경험이 있는데 타 학교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학생총회가 무산됐을 때 학생총투표를 채택하는 방식 이러한 여러 가지 관례들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학생총투표의 위치나 지위 같은 게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문대학의 의견이다.

사과.정: 인문대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도 저희 단위에서 논의를 하긴 했었다. 근데 다만 제가 정확히 몇 조인지는 찾아봐야겠지만 학생총회 관련 조항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학생총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보서는 학생회칙조차도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의 명확한 우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그리고 명확한 우위를 명시하고 있지도 않지만 학생총회가 무산되면 총투표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니 학생총회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총: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우선 총학생회장단의 근거는 성사에 필요한 의사 참여율이다. 회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저도 회칙 개정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사과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제13조 3항이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사실 이 조항의 유권 해석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회칙 자체를 얹으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되고 다른 조항의 개정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학생총회랑 학생총투표가 말씀해주신대로 중앙대학교 학생 자치 내 최고의 의결 기구고 최고의 논의의 장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된다 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니까 이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간에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한 동의나 추가 의견도 좋다. 아니면 더 논의가 필요하다 차기 중운위로 이 내용을 이관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도 좋다.

인문.정: 인문대학 일단은 의견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총투표와 총회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일단 총투표는 어찌 됐든 간에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총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의결을 거치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민주적인 토론의 장과 공론장이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이 총회와 총투표의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인문대학은 총회가 먼저 최고 의결권을 가지는 총회가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총회에 대한 부수적인 조항으로서 총투표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인문대학의 입장이라고 보주시면 될 것 같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사회과학대학이 써준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정: 사과대도 동일한 의견인데 저희 단위에서 나왔던 의견은 학생총투표는 사실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거고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과정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학생자치라는 거는 이제 다수의 학생의 투표로 인한 의견이 아니라 어떤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총회랑 학생총투표 중에 학생총회가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기는 하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간에 우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 그런데 현행 회칙에서 81조 2항에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 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명백히 학생회칙에서 총투표가 학생총회보다 우위에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의 의견의 맥락으로 봐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내도록 하겠다. 우선 총투표와 총회 우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 총투표를 대신한다 이 조항이 총회가 총투표보다 우위에 있다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총회의 경우에는 그 장에 사람들이 모일 한시간 일시에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지 않으니 기간을 조금 두고 진행할 수 있는 총투표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고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항으로 총회가 총투표보다 우선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을 낸다. 그리고 또한 총투표가 총회 우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경대는 조금 더 논의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총: 차기 중운위 회의로 내용 이관할지? 네 알겠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제3조 중앙감사위원회를 중앙감사위원회에 관련 회칙을 부칙이 아닌 본 조항으로 개정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기구 설립 내용이 부칙에 있는 것이 규칙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감위 관련된 회칙 개정도 현재 중감위원장이 없는 상황이고 이번 학운위에서 중간이 향후 방향성과 자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끝이 난 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었다. 대표자분들 의견 구하겠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은 일단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현재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지위 같은 것 자체도 회칙상에 명확하게 규제가 안돼있기때문에 함부로 본 회칙에 올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 일단 현재는 부칙으로 존재하되 차후에 확대운영위원회나 중운위 차원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기구의 성격이나 지위 같은 걸 조금 더 명확히 한 후에 본칙으로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것이 인문대학의 생각이다.

간호.정: 간호대 인문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인문대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총: 그러면 해당 내용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다. 중감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차후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중운위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관계성 적립 조항을 제정하자 라는 제안이었다. 배경 설명이다. 현재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간 관계성을 명시한 조항이 부재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대의 경우 제28조 단과대 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에서 운영위원회가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5조 집행부 지휘에서 집행부는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 집행 단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간 관계성이 명확히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단 의견 먼저 드러도 괜찮은지? 네 우선 해당 제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위는 각 장 첫 번째 조에 명시하고 있다. 현행 회칙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예결산안 심의 조정, 집행부 업무 조정, 집행부 인원에 대한 임명 및 탄핵소추 및 소환권을 가지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회칙 내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사과.정: 제안 단위 사과대 말씀하신 내용 이해했다.

총: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인지?

사과.정: 동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했다는 의견이다.

총: 다른 단위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한다고 이런식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총: 네 사과대에서 주신 마지막 내용이다.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특별회계 조항 개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평위, 장인위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해당 내용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해당 내용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총: 네 다음 중운위 회의때로 이관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통일공대에서 주신 의견이다. 3장 17조, 4장 26조 진행자 및 의장이 부재할 시 의장 및 진행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우선 회칙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장단의 부재 시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선출되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회칙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는 바, 비대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조항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총학생회장이 부재해서 부총이 총을 대행함으로써 부총이 위장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면 그렇기에 진행자가 부재할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총은 있는데 부총이 부재해서 진행자가 부재할 경우 이 두 가지가 진행자가 부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진행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모두 전학대회 통과 안건에서 관련 의결을 통해서 진행자 선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회칙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다른 회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총학생회장단 의견에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도 동의한다.

자연.비: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총: 회칙 신설에 대해서 모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지? 네, 통일공대가 내주신 마지막 의견이다. 선거 시행 세칙. 잠시 선거시행 세칙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통일공대에서 10장 6조 나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우선 삭제할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회칙 내에서 다른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회칙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를 한다. 또한 나항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이라는 표현은 7일의 기간이 있더라도 중선관위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통해 전항의 1에 관한 학생 자치 업무의 이관, 2에서 4에 관한 개인 및 단체 정보 보호 5에 관한 선거 정리와 학생회 행정으로의 복귀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학생 자치의 차질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판단이 된다. 이에 따라 회칙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 동의한다.

총: 네. 다음으로 인문대학에서도 선거권의 확대 그리고 31조 나항의 삭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사과대에서 내주신 의견에서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괜찮을지?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정리하도록 하겠다. 차기 중운위 회의로 이관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제6조, 제32조, 제39조, 제 10장 전체 개정안, 그리고 제63조 1항 피선거 자격 중 4차 학기 이상을 삭제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81조 학생 총회와 학생 총투표 간의 관계성, 마지막으로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특별회계 조항은 차기 중운위 회의로 이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 전에 단운위에서 논의를 해보시고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범.정: 질의 사항이 하나 있다. 드려도 될지?

총: 네.

사범.정: 저희 단위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선거시행세칙에서 피선거권에 정,부 학생회장 입후보자 2인 1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러닝메이트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 단위에서 반드시 러닝메이트 제도로 진행을 해야 될 지 이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그리고 제 생각도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장 후보자를 따로 이제 투표를 받고 부회장은 따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근데 저도 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을 것 같은 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 공유해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하고 반영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부탁 좀 드리겠다.

총: 우선 러닝메이트 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생 자치회 전반을 이제 다루는 총학 회장단이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러닝메이트제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사건이지만...

사범.정: 맞다. 저도 동의하고 또 이제 선분을 뿌리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총학생회장님이나 다른 단과대 회장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종합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다. 감사하다.

총: 네, 다음으로 표기 수정 관련된 개정안인데 5분간 정독시간 드리겠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각 학과(부)라고 표기를 수정하고자 하고, 제41조 2항에 있는 집행국을 문장을 명확하기 위해서 각 집행국장으로 표기를 수정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학 및 학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단과대학 및 학과(부)로, 그리고 단과, 학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단과대학, 학과(부)라고 표기를 수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칙 중 제8조 가항에서 집행위원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1학기 전 학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로 표기가 수정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로 표기를 수정하고자 한다. 밑에 내용은 봐주시면 되겠다.

인문.정: 혹시 해당 내용 확인하고 피드백 드리면 되는지?

총: 네. 이제 정독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해당 내용 전부 동의한다.

총: 네, 감사하다. 다른 대표자분들도 동의여부나 추가의견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란다.

경경.부: 경경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 추가의견 없다.

자연.비: 자연대도 추가의견 없고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총: 네 이견 없으신 걸로 하겠다. 혹시 회칙 및 세칙 개정 관련해서 기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계신지?

사과.정: 정말 별거 아니고 이거 단순한 질의이다. 총학생회에서 관례적으로 삭제 조항을 그냥 두고 재개정 조항을 가지 번호로 마킹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하다.

총: 그 회칙이 계속해서 몇 십 년 동안 적용이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항이 밀려버리면 저번에 어떤 회칙을 가지고 적용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해가 되셨는지? 그 조항이 유지가 되어야지 저번에 그 조항을 적용을 했던 그 사례에서 계속 실효가 유지가 된다.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 자문이었다. 보통은 법률도 그렇고 사표 조항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

사과.정: 네 이해가 되었다. 저희 저희 사과대 회장단도 가지 번호 관련된 게 너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법률에서는 개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 조항이 추가될 때 이제 16조 2 이런 식으로 법률에

서는 적용을 하는데, 학생 회칙은 가지 수가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조항이 번호가 바뀌면 그대로 미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왜 총학생회 측에서는 계속 가지 번호를 사용했을까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다. 이해했다. 감사하다.

총: 네, 감사하다. 기타 의견 없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4 기타안건

학사정기협의체 및 기획처 면담 (29일)

협의체 오전 10~11시 중, 면담 15시 30분

위치 및 세부 시간 27일 중 안내 예정

총: 첫 번째로 학사 정기 협의체 및 기획처 면담이다. 두 가지 모두 29일에 진행이 된다. 협의체는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고, 기획처 면담은 15시 30분에 진행이 된다. 현재까지 학사정기 협의체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대표자 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학사 정책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운위 대표자 1인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표자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처 면담의 참석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등록금 환불 협의체로 같이 참가했던 경경대 회장님은 의무로 참석을 하고, 나머지 중운위분들 중에 또 희망하시는 1인을 선정을 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 또한 희망하시는 대표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위요구안 및 리더스 포럼이다. 제가 오늘 찾아갔다. 단위요구안은 내일 주신다고 하고 공대 교학지원팀 답변 빼고 다 답변이 수합이 된 상태다, 그거 감안하시고 공대는 봐주시면 되겠다. 리더스 포럼관련해서도 내일 중으로 공문의 형태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리더스 포럼 개최에 반대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중운위 차원에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장학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다. 오늘 다시 찾아가서 장학제도 개정 내 신설 장학금의 성적반영 비율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 논의가 된 바는 없다 라고 했다. 이에 70% 이상 성적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라는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재전달하고 왔다. 네 번째로 현재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운위 통방을 통해서 축제 홍보물을 공유해드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오늘 깃발 입장식 영상이 올라갔으니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다. 추가 의견, 추가 안건 있으신지?

사과.정: 사과대 의견 있다. 기획처 방문해서 21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학교 본부의 오피셜한 입장도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 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이건 다른 논의인데 총학생회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과 관련해서 2분기 간담회에서도 총학생회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을 요청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단위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총학생회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을 열람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총학생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쭙보니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이 대외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과대는 총학생회가 학생자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로 총학생회 내부에서 결정하시고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음 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 공개에 대한 중운위 의결까지 진행하고 싶다. 따라서 요지는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 공개 관련해서 다음 주 논의 안건 상정을 요청드린다.

총: 네, 알겠다.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고 이미 국,위원장단 회의록 대외비 등급을 유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분기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학우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 중운위 대표자분들이 2분기 간담회 속 기록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주 회의안건으로 공식 상정해주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학사정기 협의체가 소집이 된다. 그래서 8주차 이후의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행 유지로 가는지, 아니면 변경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경경.정: 경경대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현행 유지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학교에서 적시해 놓은 매뉴얼이 이제 현행 유지니까 그 현행 유지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정부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

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학사 운영 방식도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총: 위드 코로나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문.정: 네 맞다. 사실 위드 코로나지만 위드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하고 싶었다.

총: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다. 네 혹시나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유지에 모든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나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학사 운영 방식이 변경되거나 논의가 필요하게 될 시 반드시 학생 대표자와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한 불편 사례가 접수된 게 있다면 제가 중운위 끝나고 게시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게시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학사정기 협의체를 통해서 불만 사례, 불편 사례들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중앙운영위원회 40차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약학.정: 약대 간단하게 질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을 때 계속 문자가 이제 중앙대생 전체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문의를 어디로 해야 될지, 지금 확진자를 확진이 됐다 라는 건 상관없는데 교내 방문이 없는데도 확진이 됐다 라는 그걸 알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문의드리고자 말씀드린다.

총: 제가 알기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알고 있는데 연락처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약학.정: 네, 알겠다.

총: 관련해서는 학생지원팀 이유학 주임님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 여쭙보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약학.정: 네, 알겠다.

총: 네 추가의견 없으시면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